

# 韓國的人間關係의 問題點

韓 昌 榮

目	次
I 序 論	IV 人間性改造問題
II 韓國的人間關係의 前近代性	V 人間關係改善의 方案
III 韓國人의 社會化와 性格	VI 結 論

## I 序 論

R. Saltonstall은 人間關係論을 定義하여 活動하는 人間에 관한 研究이다. (Human Relations is the study of people in action) 라고 하였거니와 活動하는 人間の 樣相은 時의 古今, 場의 東西에 따라 다르다.

本論에서는 韓國이라는 場에 관한 人間關係를 살피보려 하는바, 오늘의 韓國적인 人間관계는 결코 오늘에야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그것은 時間的次元에서 過去의 人間관계가 投影되어진 것으로 보아진다. 이것을 前近代的인 人間關係라고 할 수 있는바 먼저 韓國적인 人間관계의 前近代性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韓國人의 性格과 社會化過程을 분석한 다음 韓國적인 人間관계의 問題點을, 人間性改造問題와 人間關係改善의 方案으로 나누어 살피 보고자 한다.

## II 韓國的人間關係의 前近代性

韓國적인 人間關係를 어느 하나의 圖式으로 규정하여 살피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古來로 三綱五倫이라 하여 儒敎的인 對人關係의 規範이 강조되어 그것이 우리나라 人의 人間關係의 志向을 위한 기준이 되어 왔으나 그 영향이 아직까지 우리들의 生活속에 남아 있음은 否認할 수가 없다.

여기에 韓國적인 人間關係의 前近代性을, 情誼性, 傳統性, 歸屬性, 分派性 그리고 權威性으로 나누어 살피보면 다음과 같다.

### 1. 情 誼 性

I. Parsons는 情誼性을 感情性 (Affectivity)과 廣範性 (Diffuseness)의 두가지 次元으로 구별하고 있거니와 感情性이란 올바른 事照는 알고 있으면서도 도저히 感情이 그것을 시

인케 하지 않는 경우이다. 확실히 우리에게서 이러한 성향이 많은 것 같다.

다음으로 廣範性은 다른 사람과 全人格的으로 교섭하는 인간관계의 類型을 말하는바, 이런 性向도 우리에게서 있는 것 같다. 全人格的이란 사람을 사귀는데 있어서 그 사람을 手段視하지 않고 目的視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Kant의 주장과 同斷이다.

## 2. 傳統性

傳統性은 과거의 生活樣式을 소중히 여길뿐더러 그것을 충실히 이행해나가는 것에 究極的價値를 두는 生活態度속에 여실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對人關係 또는 人間關係에 이러한 성향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샤머니즘」과 儒敎의 倫理가 사람들의 思考方式의 밑바닥을 지탱하고 있다. 기이하게도 「샤머니즘」은 下層民에 정착하였고 儒敎는 소위 兩班階이라고 하는 上層民에게 자리를 잡아 내려온 것 같다.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무당, 占卜家들은 「샤머니즘」의 傳統을 背景으로 삼고 있는 것이며 한편 儒敎的 敎理의 영향은 人間關係의 영역에서 특히 지배적인 威勢를 보이고 있다. 可謂 한국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 傳統性이 강하다 할수 있다.

## 3. 歸屬性

歸屬性 (Ascription)은 身分意識에 철저한 心性을 말한다. 즉 한국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歸屬性은 李朝를 支配하였으며 지금도 그러한 殘滓가 남아 있는 것 같다.

무릇 先任序列 (Seniority)의 思考方式도 따지고 보면 歸屬的인 心性의 하나라 할수 있다.

家門, 出身, 性別, 年齡과 같은 身分的 屬性은 업적이나 能力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데, 오히려 後者를 前者의 基準에서 配列評價하려는 우리들의 태도는 近代化에의 機會를 沮止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이도 요즘에 와서 歸屬的 態度가 아닌 業績的 態度 (Achievement)에로의 轉換이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4. 分派性

分派性이란 자기가 소속한 集團을 유일한 準據基準으로 하여 思考 혹은 行動하는 習性을 말한다. 社會學的으로 말하면 排外的인 內集團意識 (In-groupness)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우리에게는 族閥主義, 緣故主義, 地方主義, 家族主義의 心性을 포함하는 狹量한 利己的 態度가 있다.

同僚 (즉 資格)를 무시하고서 家族이나 學校에만 충실하려는 태도, 다시 말하면 人間關係가 橫斷的인 集團結束의 紐帶에서 弱하고 오히려 縱斷的인 집단결속의 紐帶에만 強하다는 사실은 분명히 前近代的 次元에 속하는 것이다.

### 5. 權威性

權威性이란 公式的인 上下關係를 人間關係에서까지 요구하는 태도를 말한다. 上下관계에서 上位에 위치한 자는 下位者에게 보통 人間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下位者는 또한 上位者에게 獻身的인 희생을 바치는 것을 당연한 義務인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權威主義的인 性向이다. 이러한 性向이 과거에는 강하게 나타났었지만 요즘에 와서는 弱化되어가는 경향이 있으며 근자에 유행했던 下剋上이나 世代交替라는 말은 權威主義에 대한 挑戰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한국적인 人間關係의 前近代性으로는 情誼性, 傳統性, 歸屬性, 分派性 그리고 權威性이 지적되어지고 있거니와 그중에서도 歸屬性이 人間關係에 미치는 영향이至大하다고 본다.

이상은 한국적인 人間關係를 過去에서 부터 現在에 이르는 過程이라는 側面에서 살펴봤는데 다음에는 오늘의 한국적인 人間關係의 狀況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인의 社會化와 性格을 고찰하기로 한다.

## Ⅲ 韓國人の 社會化와 性格

### 1. 韓國人の 社會化

무릇 社會化란 단적으로 말해서 人間有機體가 출생한 후 社會的으로 是認된 態度, 觀念, 行動樣式을 他人과의 接觸을 통해 學習해 가는 과정을 뜻하는 바, 한국인의 社會化를 放任制授乳, 排池訓練, 子女訓育方式, 交友集團, 그리고 學校와 매스·미디어의 視角에서 살펴본다.

#### 1) 放任制授乳

한국인의 育兒方式의 하나로 放任制授乳現象을 들 수 있다. 西洋의 授乳制와는 달라서 兒童이 클때까지 授乳하는 성향을 뜻한다.

이러한 授乳方式은 愛情을 敦篤히 하고 相互依存性을 조장시킨다. 그것은 兒童의 道시락 役割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獨立心을 弱化시킬뿐만 아니라 이른바 mother complex가 유발된다. 한편 아동이 자라서도 제대로 男性의 役割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 2) 排池訓練

아동에 대한 排池訓練도 제대로 안시키는 성향이 능후하다. 이러한 훈련이 嚴하지 않으면 動物的인 要求가 나타나기 쉬우며 無事安逸主義, 泰平主義的인 類型으로 成長하기 쉽다. 反對로 嚴한 排池訓練을 받게되면 忍耐性이 강하게 되고 進取性, 獨立性등이 강하게 나타난다. 우리의 경우 前者에 속하므로 無事安逸主義, 泰平主義的인 類型의 人間形成이 쉽사리 이뤄질 可能性이 짙은 것 같다.

### 3) 子女訓育方式

子女訓育方式에 있어서 專制主義的方式을 취하고 있다. 즉 子女를 부모의 뜻대로 훈육하려 든다. 家父長制的인 上下關係를 子女訓育에도 적용시키려 하는 성향이 짙다. 그래서 子女를 칭찬하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라고 裁制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都市와 農촌에서 差異가 있으니 後者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강한 것 같다.

### 4) 交友集團

交友集團에 있어서 과거에는 공부 잘 하는 사람 또는 힘이 센 사람이 標準型으로 추앙을 받아왔지만 요즘에는 그러한 표준이 社交的인 사람으로 옮겨가고 있어 傳統的인 경향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交友關係에 있어서 東洋에서 볼 수 있는 義理문제가 강하게 作動하고 있어 交友集團에 있어서는 東洋的인 것과 西洋的인 인간관계가 混合되어 있다.

### 5) 學校와 매스·미디어

학교에서는 弘益人間과 국민교육헌장의 理念에 立脚한 文化暢達教育을 하고 있는 반면, 매스·미디어는 外來文化的인 要求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즉 技術文化, 物質文化, 나아가서는 D. Riesman의 이른바 消費文化까지 흡수하여 모방문화를 傳播시키고 있어 現實과 外來文化와의 Gap을 형성케 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인의 社會化는, 放任制授乳, 排池訓練 그리고 子女訓育方式의 側面에서 前近代性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交友集團의 측면에서는 前近代性和 近代性이 混合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매스·미디어에 있어서는 現代性乃至 超現代性이 나타나고 있어 한국인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이른바 八方美人의으로 움직여야만 好評을 받게 되어 있다.

## 2. 韓國人的性格

위에서 한국인의 社會化過程에서 前近代性, 近代性 그리고 現代性乃至 超現代性이 混合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왔다. 그에 따른 한국인의 性格도 一言으로 蔽之할 수는 없다.

### 1) 異質的要素의 複合型

한국인의 性格은 前近代的인 요소 즉, 情誼性, 傳統性, 歸屬性, 分派性 그리고 權威性으로 投影된 性格과 近代的인 요소 즉 能力, 業績主義등으로 投影된 性格 그리고 外來文化의 影響등으로 인하여 그 性格은 複合型을 露現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前近代的인 요소인 사람도 좋아야 하고 近代的인 요소인 能力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2) 評價基準

한국인의 評價基準도 多樣해서 近代的인 評價基準(能力, 業績性等)과 前近代的인 評價基準(사람이 좋다, 사람이 무뎌하다등)이 混合되어 있다.

## Ⅳ 人間性改造問題

近代化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첫째로 人間性改造問題가 云論되어야 하고 둘째로 社會勞働氣의 造成問題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는 첫째문제를 다루고 둘째 문제는 다음 章을 달리하여 論하려 한다.

人間性的의 改造問題는 한국문화의 過程과 밀접히 關連되어 있다. 따라서 첫째로 文化解体에서 오는 價値葛藤을 解消하여야 하는 문제를 다루고 다음으로 自我支柱의 確立問題 卽ち 自己統制의 心理的機制確立問題를 다루려 한다.

### 1) 價値葛藤의 解消

우리나라에서는 傳統的文化와 外來文化와의 交錯에서 兩文化의 가치가 共存하던서 사람들의 行動基準의 方向의 設定되지 못하고 구체적인 方向 감각을 상실하고 價値體系의 무질서와 價値葛藤이 되풀이 되어왔다. 여기에 우리의 價値體系를 確立하여 가치갈등을 解消시켜야 한다.

### 2) 自我支柱의 確立

우리는 이미 血緣的紐帶나 地緣的紐帶를 不諳하는 Gesellschaft적 社會분위기를 맞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신하는 心理的紐帶를 위한 支柱를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自我支柱의 確立이 필요하다.

### 3) 自己統制의 心理的機制確立

전통적인 우리의 自我防衛의 메카니즘은 체념이었다. 체념은 無關心의 한 變型이다. 시대는 그러한 消極的이고 受動的인 機制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自己防衛機制로서 西洋 사람들은 合理化(rationalization), 外面化(externalization), 逆反應(reaction formation), 置換(displacement), 同一化(identification) 그리고 逃避(Escape)등의 다양한 方式을 사용했는데 우리 亂上들은 유독 體念型뿐이었다.

이 前近代的인 體念방식을 불식하고 欲求充足의 기회를 찾아 해매는 積極적 機制를 活用하여야 할 것이다.

## Ⅴ 人間關係改善의 方案

한국적 인간관계의 바람직한 基準으로서 合理的思考, 勤勞精神, 遵法精神, 民主性, 市民意識, 民族愛를 들 수 있거니와 그것은 勤勞를 통한 合理的 欲求充足을 意味하고 遵法精神에 立脚한 인간관계의 規則 내지 民主化를 志向하는 것이고 市民으로서의 모랄과 民族意識에의 透徹을 정신적支柱로 삼는 生活에로의 改善을 希求하는 反省과 각성의 운동으로서 展

開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을 生活속에 注入하고 行動속에 浸透시키는 作業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은 端的으로 말해서 새로운 氣風을 振作하는 社會雰圍氣를 조성하는데서 달성될 수 있다.

새로운 인간관계의 改善은 健全한 人間性改造와 새로운 社會雰圍氣의 形成에 있다. 이러한 雰圍氣形成의 單位는 우리 社會에선 家族, 學校, 職場集團일 것이다. 다음에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 1. 家族雰圍氣改善

家族은 흔히 人間性形成의 母體라 말하고 있다. 특히 父母들의 養育方針은 民族的 性格의 形成基礎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족은 아직도 權威主義的 養育方式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民主의 性格의 形成을 阻害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重要한 것은 家族의 社會와의 斷絶현상이다. 社會는 近代化를 志向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가족은 대체로 前近代의인 生活基準에 依存하여 傳統의인 價値體系를 傳達하고 있으므로서 近代化에 逆行하는 要因을 오히려 助成해주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理想型은 個人·家族·學校·地域社會·職場·全體社會의 目標가 合致되는데 있다 하겠다. 가족속에서 새로운 氣風을 振作하려면 社會의 基準과 一致되는 賞罰의 기준을 採用하는 方案을 社會教育을 통해 권장해야 한다.

### 2. 學校集團雰圍氣改善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직접적인 知識傳達에 置重해 왔고 情緒的인 人格陶冶나 人間性改造를 위한 方向은 거의 等閑視해 온 느낌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性向이 換骨奪胎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小集團學習方式이 권장될만하다. 보다 具體的으로 말하면 학교의 學級을 보다 小單位로 나누고 經驗을 共有케 하고 相互協力으로 共同의 成長을 促進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大學生社會에 散在한 씨를조직이나 成人社會에서의 隣保組織에도 적용될만 하다.

### 3. 職場集團의 雰圍氣改善

직장에 있어서 새로운 勤務態度, 健實한 직업정신을 確立한다는 것은 能率向上을 위한 刺戟因乃至 補助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의 紀綱確立은 물론 個人企業體의 종사원에 게도 그것은 緊要하다. 또한 직장사회에서의 새로운 氣風의 振作은 직장책임자의 卓越한 統率力도 중요하겠지만 亦是 새로운 集團의 壓力은 조성함으로써 이룩될 수 있다. 이러한 集團의 壓力은 集團의 決定의 새로운 經營方式을 導入하는데서 얻어질 수 있는바 集團의 決定은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려온다고 알려지고 있다. ① 各者가 갖는 資料나 意見이 對되므로 成員의 視野가 넓어지고 各者의 個性이 尊重되고 優越感이나 劣等感을 超克한 協

同精神이 길러지고, ② 集團的 決定으로 成員들은 스스로 決定에 적극 參與했다는 意識을 높여 行動에로의 意欲이 強化되고 ③ 個人으로 하여금 집단을 떠난 個人으로서가 아니라 集團의 一員으로서 行動을 하게하는 利點을 가지고 있다.

## VI 結 論

위에서 韓國의 人間關係의 前近代性을 먼저 고찰하고 그에 따른 韓國人의 社會化過程을 살펴 봄으로써 韓國인인 性格을 규정지었다.

다음으로 바람직한 近代의 人間關係의 定立을 위하여 人間性改造問題와 社會雰圍氣의 형성문제를 살펴봤다.

무릇 人間關係論은 1930年代에 提高되기 시작하면서 요즘에 와서는 그에 대한 反省乃至 批判도 없지 않으며 J. H. Cooper 같은 사람은 「人間關係의 危機」(The Crisis in Human Relations)라는 論文에서 人間關係論의 限界點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方向을 모색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종래의 人間關係論은 첫째, 지금은 널리 價値가 減少되어졌다고 알려지고 있는 科學的敎義(Scientific dogmatism)로 부터 打擊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R. W. Emerson의 말과 같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Law for man)과 事物에 적용되는 법(Law for things)이 있다. 과학적교의는 후자에 속하는 것이며 인간관계론은 전자에 속하는 것이다. 여기에 인간관계론의 難解性이 있는 것이다.

둘째로 지금까지의 人間關係論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the relationship of man to man)에만 치중하고 인간자체의 연구(the study of man himself)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Cooper는 바람직한 人間關係論의 定立을 위해서 다음 세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공업이나 산업분야에서의 교육을 그 분야의 기술적요구를 充當하기 위한 것보다는 차라리 生活(living)을 위한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일에 대한 참 뜻을 回復하도록 노력을 增大시켜야 한다.

셋째, 人間關係論에 있어서 價値基準을 發展시켜야 한다.

우리는 Cooper가 지적한 바를 깊이 참고해서 한국적인 인간관계에 있어 前近代的인 素因을 불식시키고 近代의인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한 노력을 傾注하여야 할 것이다.

近代化된 人間關係의 形成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소홀했던 人間自体에 대한 연구를 보다 더하여야 할 것인데, 인간에 관한 연구에는 Scheler의 이른바 "Allmensch", 또는 Peper Drucker의 이른바 "Whole man"의 概念을 잘 認識하면서 研究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固有의 行誼性과 같은 것은 계속 保持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진다. 이러한 바탕 위에 近代的인 人間關係가 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結論的으로 人間性의 改造위에 社會的 雰圍氣가 바람직한 向方으로 再構成되어야 하고 近

代화된 價値体系의 確立과 이를 뒷받침하는 規範文化의 秩序가 다듬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參 考 文 獻 >

1. 申宗淳, 新稿行政學概論
2. 柳基鉉, 人間關係論
3. 藻利產陸, 人間關係論
4. Keisth Davis & W. G. Scott,  
Readings in Human Relations
5. R. Saltonstall,  
Human Relations in Adminstration
6. 讀書新聞, No. 97. No. 98. No. 99. No. 101.
7. 尹泰林, 韓國人の 性格.
8. 洪承稷, 韓國人の 價値觀研究
9. 高永復, 現代社會學
10. 韓國放送通信大學, 人間關係論 I, II
11. 朴璉鎬, 人間關係論
12. 淑明女大學生指導研究所, 大學生活案内Ⅶ, 人間關係
13. 춘천 敎育대학 학생지도 연구소, 학생지도 씨리즈②. 인간 관계